생태문학은 그 자체가 온전히 하나의 장르로 규정되었다기보다 생태학적 관점으로 쓰여진 작품이 생태문학으로 구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태 시문학만 두고 보아도 생태시, 환경시, 생명시 등 다양한 용어 선정의 문제가 존재하는 등, 뚜렷하게 정해진 분야가 아닙니다. 이러한 생태문학은 문학에서 또 하나의 대안문화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순수시. 참여시**

한국에서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른 급진적 산업화가 가져온 환경오염 현상이 문단의 생태문학을 태동시킨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환경 파괴로 사람들이 자연 훼손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되며 생태문학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태문학과 관련된 작가들을 문학의 대표적인 장르인 시와 소설 분야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소설 분야에서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저자인 조세희 씨와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인 이효석 씨 등이 있습니다. 생태문학은 시가 더욱 발달되어 있는데 이를 각 연도의 주요 작가와 대표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부서진 활주로’는 80년에 쓰여졌으나 작품에서 반영하는 시기는 70년대인 등, 여기서는 창작 시기가 아니라 작품에서 반영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생태문학 작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에서는 여러분께서 모의고사를 공부하실 때 한 번쯤 접해보셨을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시는 다들 아시다시피 196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황폐해진 자연으로부터 점차 소외되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 보여준 작품입니다. 문명에 의한 자연 파괴와 인간 소외, 인간성 상실을 주제로 하며, 황폐화된 인간의 삶과 그에 대한 연민을 통해 참다운 삶의 회복을 희구하고 있습니다.

작품을 분석해봅시다. ‘번지가 새로 생겼다’는 것은 문명의 침투로 인한 자연의 파괴를 의미하며, ‘번지가 없어졌다’는 것은 비둘기가 보금자리를 잃어버렸음을 뜻합니다. ‘새벽부터 돌깨는 산울림’이나 ‘채석장 포성’은 현대 문명의 병폐를 단적으로 상징하며, ‘가슴에 금이 갔다’는 말을 통해 파괴로 인해 사랑과 평화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설 분야입니다. 한국명작으로 알려진 조세희 씨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또한 대표적인 생태문학작품인데요, 작가는 집필 동기를 다음과 같이 “인간의 기본권이 말살된 ‘칼’의 시간에 나는 작은 ‘펜’으로 작은 노트에 글을 써나가며 이 작품들이 하나하나 작은 덩어리에 불과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파괴를 견디고 따뜻한 사랑과 고통받는 피의 이야기로 살아 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나는 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책 속의 ‘기계도시’라는 장의 일부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은강 지역에서,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한 이 소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으로도 유명한데요. 이처럼 이 소설에는 공장 굴뚝 매연, 대기 오염, 폐수와 폐유, 호흡장애, 소음 공해뿐 아니라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낮은 임금, 장시간의 고된 노동 등 다양한 생태학적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작품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뫼비우스의 띠’와 ‘클라인씨의 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쪽 사진이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시는 뫼비우스의 띠를 상징하는 사진이고 이쪽 사진이 클라인씨의 병입니다. 두 모형이 상징하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는 세계가 아닌 그것을 초월하여 구분하는 세계입니다. 즉 세계는 공생하며 상호 관계적이고, 무자비한 자연지배를 초래한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찾아 개혁하는 것이 자연과 사회 사이에 뿌리 깊은 연속성을 회복시킨다는 사회생태학적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생태문학의 **현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생태문학은 근대적 개발정책에 대한 하나의 탈근대, 즉 개발주의와 생태주의의 충돌 속에서 무엇을 취하고 선택해야 할 것인가의 이념에 근본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며, 단순히 자연에 대한 낭만적 대응으로 다가서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태문학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생태문학은 서정성과 미학에 관련한 문학의 역할에 현실 개선적 의지가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태문학은 언어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정치적.사회적 실천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